

# 전남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총력전

### 상담센터 설치 24시간 운영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 확대

### 위기가구 우선 지원 등 대책 강화

전남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 발생 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정보 접수 접촉면 확대와 역량 강화,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확대, 중장기 제도 개선 및 정부 건의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전남도는 '복지 위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시·군·읍면동과 연계해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구제절차를 보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직렬 구분 없이 공무원 기초 복지교육을 실시해 모든 공무원을 복지상담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공동체의 복지교육을 상시화해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위기가구 집중 발굴 추진단'도 구성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일제 조사를 한다. 대상자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긴급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확대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지원팀 역량 강화, 구석구석 찾아가는 '전남버스삼총사'인 전남행복버스, 마음안심서비스, 건강지

킴버스를 운영한다. 특히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및 건강관리서비스와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고,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불일치한 사람이 위기신호 접수 시 복지전담 공무원이 문제 해결을 추적해 지원하도록 정부에 법제도 정비도 건의하기로 했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고 보살핌을 받도록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로 보살피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제도권에서 보호 받아 더불어 사는 전남 행복시대가 실현되도록, 모든 도민께서 위기가구 발굴 조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시·공연·체험·강연·독서의 왕 선발대회 전남도립도서관 풍성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 하반기 28개 과정 운영

### 범도민 책 읽는 문화 확산

전남도립도서관이 책 읽기 좋은 가을을 맞아 '9월 독서의 달 행사'로 전시, 공연, 체험, 강연 등 17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 또 범도민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제30회 전라남도 독서왕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은 여순항쟁 역사를 그림으로 재현한 작품을 전시하는 '여순항쟁 역사화전', 안데르센 원작을 방정환 선생이 각색한 종이접 인형극 '그것 참 좋다!'를 준비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다육화분을 만들어보는 '일회용 컵의 쓸모있는 변신', 사진 찍고 그려보는 '수요일 아침 드로잉', 낙엽스네클을 만들어보는 '그림책 놀이 방'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또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한 다채로운 특강도 진행한다. '길 위의 인문학', '학부모 특강', '부모독서교육', '찾아가는 올해의 책 작가와의 만남' 등 강연이 개최된다. 이와 함께 '2022년 전라남도 올해의 책 전시'와 함께 전남도립도서관

이용자 참여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함께 준비한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28개 과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독서 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대상 '그림책 독서놀이터', 아동양육시설인 여수 심해원과 강진 자비원생 대상 '찾아가는 책놀이'를 운영한다. 또 도립도서관 운영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도내 다문화 이주민 대상 '세계놀이 문화융합 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독서왕 선발대회는 개인과 동아리 2개 부문에서 초등부 저·고학년, 중·고등부, 일반부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독후감상문 작성 대상 도서는 전남도립도서관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별빛 전사 소은하', '순례주택', '어린왕자'로부터 세드무비, '쌀 재난 국가' 등 4권과 시군공공도서관이 선정한 41권을 포함한 총 45권이다. 김희필 전남도립도서관장은 "많은 도민이 독서왕 선발대회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 읽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공공의료원 최신 의료기기 확충·진료 과목 다양화 필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선호도 조사

### 접근성 향상·신속한 접수도 요구

전남 공공의료원이 자리한 순천과 강진 주민들은 공공의료원의 최신 의료기기 도입과 진료과목 다양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박원주)은 지난달 31일 강진의료원에서 지방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선호도 조사'의 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선호도 조사'는 지역민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 의료기관 선호도, 공공의료 관련 인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이 있는 순천·강진 지역 성인 남녀 322명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역민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선호도 향상 방안으로 '최신 장비와 의료기기의 도입이 필요하다'(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72명(84.4%), '전문의 확보를 통한 진료과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51명(77.9%)이



었다. 또 '의료원의 교통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270명(83.8%), '진료 예약 및 접수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 증대가 필요하다' 276명(85.7%), '환자 응대 직원과 의료진의 친절성 향상이 필요하다' 273명(84.7%)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이번 조사 연구

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앞으로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해 지역 주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실질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조사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미래 백년 먹거리로"

### 전남도·시·군 관광전문가

### 개발 방향·사업비 등 머리 맞대

전남도는 최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관광실장, 관광과장을 대상으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추진상황 설명회를 열어 전남관광의 미래 백년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 방향 및 사업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도, 시·군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은 그동안 사업 발굴 추진 시 미비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토론

을 펼쳤다. 전남도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보완, 제안된 사업은 향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은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 관광개발 사업이다.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 3개 권역별 연계협력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 성격의 광역 관광개발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6858억원 규모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을 3조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국정과

제로 확대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개발계획 사업비 3조원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역 관광 전문가, 시군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섬·해양·내륙 등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갖춘 남부권은 영호남 지역 동반성장에 적합한 권역으로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잘 준비해 향후 백년의 전남 관광 먹거리로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용역 수행 중인 '남부권 관광개발 개발계획'은 2023년 2월까지 수립 예정이다. 개발계획에 담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완도수목원 산림박물관, 산림문화 체험장으로

### 제2전시실 난대림 배치 새 단장

전남도 완도수목원이 박물관 특성화사업의 하나로 관람객의 산림문화 지식 습득이 용이하도록 제2전시실의 전시구성 등을 전면 개편한다.

전시실 개편은 2009년 산림박물관 개관 이후 노후 박물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동안 학예연구를 통해 확보한 난대림의 역사기록 등 결과물을 새롭게 수록하고, 패널디자인과 전시배치를 최적의 상태로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문전시업체를 선정했다. 오는 9월까지 실시할 계획, 사료 고증, 유관기관 자문을 마치고, 10월부터 구조물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람객은 12월이면 새롭게 개편된 제2전시실을 만나볼 수 있다.

새단장하는 제2전시실은 1부 난대림의 분포 현

황, 2부 난대림 대표수종, 3부 난대림 속 생활유물로 구성된 전망이다. 특히 2부에서는 난대림의 대표수종인 붉가시·황칠·동백나무의 역사적 기록을 소개한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대장군전 제작 및 사용 과정을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붉가시나무 숯생산 디오라마, 황칠나무 수액 채취 이미지패널, 황칠공예품 등도 배치할 계획이다.

난대림 속 생활유물 전시공간은 라인일러스트를 활용해 입체감이 있는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찬진 원장은 "융합한 한옥의 산림박물관에 맞게 내부 전시물 배치에도 정성을 다해 관람객이 친숙하게 산림문화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